

세계 철강산업의 M&A 현황과 시사점*

목 차

- | | |
|-------------------------|----------|
| I. 세계 및 국내 철강산업의 동향 | III. 시사점 |
| II. 세계 철강산업의 M&A 현황과 전망 | |

I. 세계 및 국내 철강산업의 동향

1. 세계 철강산업의 동향

가. 수급 동향

- 세계 조강 생산은 2005년 1,129.3 백만M/T를 기록하여 2000년 847.6 백만 M/T 대비 약 33% 증가하였고 이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6.0%로 나타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는 북경올림픽을 앞둔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임
 -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조강생산이 연평균 2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1/3에 달하는 3억 5천만톤을 기록함
 - 중국의 조강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6%에서 2000년 15.0%, 2005년 30.9%로 급상승하였음
 - 인도는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1995년 이후 일인당 철강소비량이 50% 가까이 증가해왔음
 -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침
 - 이는 세계 철강생산에서 비중이 높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포화상태이며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함
 - 일본과 EU는 각각 1.2%, 0.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1.5%의 감소율을 보임

* 본고는 산은경제연구소 이민식 수석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님

- 세계 철강 소비는 2005년 1,013.4 백만M/T를 기록하여 2000년 753.4백만 M/T 대비 35% 증가하였고 이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나타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는 중국이 2000년 이후 연평균 20.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따른 결과임
 -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의 철강재 소비는 동기간중 2.2% 증가에 그침
 - 일본은 0.6%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미국과 EU는 각각 1.6% 및 0.5%의 감소율을 보임

- 최근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 과잉 현상이 다소 커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등 개도국 기업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결과임
 - 중국 등 개도국의 철강수요가 크게 늘면서 2000년 초 공급과잉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최근 중국 등 개도국 기업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철강생산 증가로 다시 확대되고 있음

세계 조강생산 및 소비추이

(단위: 백만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증가율
조 강 생 산	중 국	127.2	150.9	182.2	222.4	280.5	349.4	22.4
	일 본	106.4	102.9	107.7	110.5	112.7	112.5	1.2
	미 국	101.8	90.1	91.6	93.7	98.9	93.3	△1.5
	EU(15)	163.4	158.5	158.7	160.7	168.3	165.1	0.2
	세 계 (중국제외)	847.6 (720.4)	850.3 (699.4)	903.8 (721.6)	969.3 (746.7)	1,056.7 (786.0)	1,129.3 (779.9)	6.0 (1.7)
철강재 소 비	중 국	124.3	153.6	186.3	234.1	270.0	315.0	20.5
	일 본	76.1	73.2	71.7	78.1	76.8	78.1	0.6
	미 국	114.7	103.8	102.7	100.4	115.6	103.5	△1.6
	EU(15)	144.6	142.0	140.2	141.9	147.7	140.9	△0.5
	세 계 (중국제외)	753.4 (629.1)	771.0 (617.4)	818.1 (631.8)	889.8 (655.7)	973.6 (703.6)	1,013.4 (698.4)	6.1 (2.2)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06

나. 업계 동향

- 2006년 세계 철강사별 조강생산에서는 M&A를 통해 성장한 인도의 Mittal과 룩셈부르크의 Arcelor가 2005년에 이어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등 업체별 순위변동이 있었음

- Mittal Steel은 2004년 기준 조강생산능력이 43백만M/T로 세계 2위였으나 2004년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ISG를 인수하며 2005년 이후 세계 1위(조강생산능력 약 64백만M/T)로 올라섬
 - Arcelor는 2002년 Usinor(프랑스), Arbed(룩셈부르크), Aceralia (스페인)의 3사 통합으로 탄생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M&A를 통한 대형화로 조강생산능력이 2002년 44백만M/T(당시 세계 1위)에서 2006년 54백만M/T로 증가함
 - 중국 당산강철(唐山鋼鐵)이 선강(宣鋼) 및 승강(承鋼)과의 합병으로 2005년 대비 3백만 톤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세계 순위가 26위에서 9위로 부상함
 - 국내 업체로는 포스코가 세계 5위, 현대제철 32위, 동국제강 94위를 기록하고 있음
 - 포스코는 일본의 JFE와 자리바꿈하면서 4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고 중국 철강사들의 생산 증가로 동국제강도 90위에서 94위로 조정됨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철강업체의 조강 생산능력이 대형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기업간의 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 10대 철강업체의 평균 조강 생산량은 1994년 14.8백만 M/T에서 2006년 31.6백만 M/T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 조강 생산량이 20백만 M/T 이상인 업체는 1994년 2개에서 2006년 8개로 증가함
 - 한편, 2000~05년중 세계 조강생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보면 5대 업체의 기여율이 23.9%로 나타나 6~10대 기업의 기여율 4.2%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 10대 철강기업 조강생산 추이

(단위: 백만 M/T, %)

순위	1994		2000		2005		2006	
	업체명	조강 생산	업체명	조강 생산	업체명	조강 생산	업체명	조강 생산
1	신일본제철	25.5	신일본제철	29.1	Mittal Steel	63.0	Mittal Steel	63.7
2	POSCO	22.1	POSCO	28.5	Arcelor	46.7	Arcelor	54.3
3	Usinor	18.5	Arbed group	24.1	신일본제철	32.0	신일본제철	33.7
4	British Steel	12.9	LNM Group	22.4	POSCO	30.5	JFE Steel	32.0
5	NKK	10.9	Usinor	21.0	JFE Steel	29.9	POSCO	31.2
6	Thyssen	10.7	NKK	20.6	상해보강	23.8	상해보강	22.5
7	US Steel	10.6	Corus	20.0	US Steel	19.3	US Steel	21.3
8	Riva	10.3	TKS	18.0	Nucor	18.4	Nucor	20.3
9	스미토모 금속	10.1	상해보강	17.7	Corus	18.2	Tang Shan	19.1
10	Baosteel	10.1	Riva Group	15.6	Riva Group	17.5	Corus	18.3
	10대 기업 평균	14.8		21.7		29.9		31.6
	10대 기업 비중	20.6		25.6		26.5		25.5

자료 : 한국철강신문 참고 제작성

2. 국내 철강산업의 동향

가. 수급동향

□ 조강생산

- 2006년 국내 조강생산은 48,433 천M/T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침
 - 낮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국내외 철강재 수요 증가세의 둔화 및 중국 철강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때문임
- 국내 조강생산은 2000~06년 중에는 연평균 2.0% 증가하여 완만한 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2000~02년은 전기로 업계의 가동을 상승에 따라 각각 전년대비 1.7%, 3.5% 증가하였음
 - 2003년은 전로의 정상 가동에 힘입어, 2004년은 국제 철강재 가격 상승과 수요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2.0%, 2.6% 증가함
 - 2005년에는 국내외 철강재 수요 증가세의 둔화 및 국내 및 중국 철강산업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부진을 보여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침

국내 조강생산과 가동률 추이

(단위 : 천M/T,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조 강 능 력	49,655	49,888	51,983	52,035	52,990	53,240	56,417	2.2
조 강 생 산	43,107	43,852	45,390	46,310	47,521	47,820	48,433	2.0
전 로	24,666	24,741	24,891	25,581	26,651	26,728	26,293	1.1
전 기 로	18,441	19,111	20,499	20,729	20,870	21,092	22,140	3.1
	(57.2)	(56.4)	(54.8)	(55.2)	(56.1)	(55.9)	(54.3%)	

주 : ()안은 전로 비중임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각년도

□ 철강재¹⁾ 생산

- 2006년 철강재 생산은 57,245 천M/T로 전년대비 4.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수출 및 생산능력의 증가에 기인함

1) 철강재의 인정범위가 세계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 또는 기업간의 철강 생산량 비교시는 조강 생산량을 대표치로 사용함. 철강재는 품목별로 생산량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함

- 2000~06년 중에는 연평균 2.7%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임
 - 2002년은 저금리와 건설경기 호조 및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5.7% 증가하였고 2004년은 전세계적인 철강수요 강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음
 - 2005년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라 0.7% 증가에 그침
- 품목별로 보면 봉형강류는 2004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감소하였고 판재류는 2004년 이후 수요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봉형강류는 2004~05년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각각 전년대비 1.6%, 6.6%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감소에 따른 반등효과로 2.8% 증가함
 - 판재류는 2004년 이후 수요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 증가세를 보였음
 - 특히, 2005년 및 2006년에는 조선, 기계 등 수요산업의 생산호조로 전년대비 6.0%, 4.9%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하였음

□ 내수동향

- 2006년 내수는 49,640천M/T로 전년대비 5.3%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함
 - 이는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호조로 판재류 등의 증가가 컸기 때문임
- 2000~06년 중에는 연평균 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2년 이후 수요산업의 생산호조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05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0.2% 감소함
- 품목별로 보면 봉형강류는 2006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재류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봉형강류는 2002년 건설경기의 호조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4년 및 2005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호조를 보여 8.7% 증가함
 - 판재류는 2001년 자동차산업의 생산부진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호조로 증가세가 지속됨

□ 수출 동향

- 2006년 국내 수출은 18,195 천M/T로 전년대비 11.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국내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여력 증가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출 확대에 기인함
- 2000~06년 중 수출은 연평균 5.0%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음

- 2000년대 초반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수입규제 완화,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품목별로 보면 봉형강류는 2006년 건설경기 둔화로 0.3% 증가에 그쳤고 판재류는 2006년 설비증설에 따른 수출여력 증가로 13.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수입동향

○ 2006년 수입은 22,483 천M/T로 전년대비 19.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이는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른 결과임

○ 2000~06년 중 수입은 연평균 1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2년 건설경기 호전으로 52%나 증가하였고 2003년 이후에도 수요산업 호조로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품목별로 보면, 봉형강류와 판재류 모두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봉형강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판재류는 후판, 열연강판이 조선산업 호조와 냉연강판의 생산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부족으로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함

국내 철강재 수급추이

(단위 : 천M/T,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철강재	생 산	48,731	48,891	51,676	53,264	54,696	55,066	57,245	2.7
	수 입	3,335	3,280	4,986	6,252	7,612	8,320	22,483	12.5
	계	52,066	52,171	56,662	59,516	62,308	63,386	79,728	4.9
	내 수	38,300	38,054	43,711	45,365	47,218	47,124	49,640	4.5
	수 출	13,766	14,117	12,951	14,151	15,090	16,262	18,195	5.0
	수 출비율	28.2	28.9	25.1	26.6	27.6	29.5	67,835	-
봉형강류	생 산	17,850	17,973	19,835	20,225	19,898	18,589	19,116	1.3
	수 입	1,405	1,365	2,437	3,084	2,878	3,312	4,483	24.3
	계	19,255	19,338	22,272	23,309	22,776	21,901	23,599	3.6
	내 수	17,143	17,269	20,509	21,753	20,831	19,334	21,025	3.8
	수 출	2,112	2,069	1,763	1,556	1,945	2,567	2,574	4.8
판재류	생 산	26,025	25,454	26,509	27,407	28,980	30,715	32,206	3.7
	수 입	1,564	1,559	2,126	2,743	4,146	9,947	11,968	46.1
	계	27,589	27,013	28,635	30,150	33,126	40,662	44,174	8.4
	내 수	17,589	16,998	19,245	19,324	21,779	23,331	24,091	5.6
	수 출	10,000	10,015	9,390	10,826	11,347	11,644	13,258	5.1

주 : 내수 = 생산 + 수입 - 수출, 수출비율 = (수출 / 생산) × 100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각년도

나.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구조

- 우리나라 철강관련 기업은 1개의 고로업체 및 12개의 전기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1,000여개로 파악됨
 - 국내에서 유일한 일관제철업체인 포스코는 2006년 국내 조강생산의 62.2%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
 - 최근 전기로 업체인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에 2011년까지 800만 톤 규모(2015년엔 1,200만 톤)의 일관제철사업의 정상가동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품목별 업계 구조를 보면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 등 다수품목에서 포스코가 과점의 지위를 가짐
 - 열연강판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이, 냉연강판은 포스코, 동부제강, 유니온스틸, 현대하이스코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함
 - 중후판은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으며 철근은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이 약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강관은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휴스틸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철강산업의 업계구조

(천M/T)

구분	시장형태	경쟁회사(시장점유율, %)	생산능력
열연강판	독 점	포스코(87.0), 현대제철(13.0)	29,152
냉연강판	과 점	포스코(56.4), 동부제강(13.1), 현대하이스코(18.1), 유니온스틸(6.6), 세아제강(1.6)	18,253
중 후 판	과 점	포스코(58.6), 동국제강(41.4)	6,283
강 관	과점	세아제강(14.1), 현대하이스코(11.2), 휴스틸(10.3), 미주제강(4.0), 동양철관(3.4), 동부제강(3.2)	7,785
철 근	과 점	현대제철(35.8), 동국제강(16.3), 한국철강(8.8), YK스틸(8.0), 대한제강(8.0), 한국제강(5.6)	12,430

주 : 시장점유율은 2005년 각 회사별 철강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한국철강협회(2006), 「2005년도 철강생산능력」

다. 경쟁력 현황

□ 무역특화지수

- 국내 철강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2001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철강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가격경쟁 약화가 주요인인 것으로 보임

- 품목별로 보면 봉형강류는 2002년 이후 무역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전 품목의 경쟁력 약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중국의 설비능력 증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봉형강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중국산 제품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판재류는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 27.5에서 2004년 19.8, 2005년 15.3을 기록, 지속적으로 약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16.2로 다소 회복함
 - 세부 품목별로 보면 중후판의 경쟁력 약화는 경쟁력 상실보다는 국내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국내공급 부족을 수입을 통해 해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열연강판의 경우 2001년 이후 경쟁력 약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상공정보다 하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져 열연강판 공급 부족을 수입으로 충당한 때문임
 -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전기강판 등 표면처리강판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 철강제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철강재 전체		7.9	△0.9	△0.6	△7.9	△5.3	△0.8
포용강류	선재	9.2	△16.5	△28.0	△11.9	△10.0	△4.7
	봉	△37.7	△50.9	△47.8	△43.0	△32.0	△29.0
	강	△2.6	△19.6	△15.1	△14.5	△14.3	△21.2
	철판	65.6	△64.3	△97.2	△82.9	△38.0	△61.6
판재류	중후판	32.8	20.0	27.5	19.8	15.3	16.2
	열연강판	△26.0	△35.9	△22.9	△53.8	△55.5	△49.7
	냉연강판	△6.2	△19.3	△1.9	△1.5	△8.1	△9.7
	아연도강판	68.6	55.3	58.0	63.4	59.7	58.6
	전기강판	78.6	71.4	58.9	49.6	59.4	72.2
	석도강판	6.3	28.8	70.9	61.6	63.6	67.3
	도금강판	95.5	92.7	95.3	99.4	98.1	98.0
	강관	49.8	56.5	61.7	66.6	61.4	59.0
강관	26.2	24.0	35.7	33.1	27.3	21.9	

주 : 무역특화지수 = ((수출액 - 수입액)/(수출액 + 수입액)) ×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 중국 경쟁력 약화

- 한국 철강제품의 대중국 시장에서의 RCA지수²⁾는 2000년 1.70에서 2003년 1.93

- 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약세로 돌아서며 2005년 1.26으로 하락함
- 최근 대중국 시장에서 RCA지수가 약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급증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과거의 보완적 분업구조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이 점차 중국의 생산제품으로 빠르게 수입 대체되고 있기 때문임
- 품목별로는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냉간압연강판, 도금강판, 합금강 강판 등이 비교우위 유지하고 있으나 철근, 형강, 봉제품 등은 비교열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한국 철강제품의 대중국 RCA지수는 판재류인 냉간압연강판, 도금강판, 합금강 강판이 각각 1.95~2.34, 1.39~2.35, 2.66~3.76으로 중국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봉형강류인 철근, 형강, 봉은 0.02~0.37, 0.32~0.56, 0.13~0.64로 중국에 비해 열위인 제품임
- 최근 전통적으로 비교열위로 분류되는 봉형강류는 물론 열간압연제품, 냉연압연강판까지 경쟁력이 약화됨
- 최근 중국내 생산설비가 급증한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의 RCA지수는 2003년 각각 2.34, 2.35에서 2005년에는 1.46, 1.39로 급락함

한국 철강제품의 대중국 RCA지수 추이

품목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열간압연강판(600MM이상)	1.36	1.12	1.10	2.04	1.43	0.97
열간압연코일	1.77	2.49	2.99	1.43	1.10	0.77
냉간압연강판(600MM미만)	1.95	1.98	1.89	2.34	1.93	1.46
도금강판(")	2.34	2.28	2.35	2.25	1.85	1.39
기타 합금강 강판	2.66	3.16	3.68	3.76	3.17	2.75
봉(단조,열간압연인발,압출)	0.13	0.06	0.07	1.48	0.64	0.24
철 근	-	0.07	0.02	0.37	0.07	0.00
형 강	0.48	0.32	0.32	1.53	0.49	0.56
소 계	1.70	1.80	1.78	1.93	1.51	1.26

자료 : 산업연구원, 『중국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2006

2)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현시비교우위지수)란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널리 쓰임. RCA지수가 1 보다 크면 비교우위, 작으면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 식으로 나타냄.
$$RCA = \frac{(\text{수출국의수출대상국철강수출} / \text{수출국의수출대상국총수출})}{(\text{수출국의철강수출} / \text{수출국의총수출})}$$

라.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현황

- 국내 철강업계는 각국의 경쟁적 증산으로 인한 공급과잉,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M&A 등 일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 열연강관은 외환위기 이전 포스코와 한보철강이 생산하였으나 한보철강 부도로 현대INI스틸(現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인수하여 구조조정이 일단락됨
 - 철근은 한보, 한국철강, 환영철강 등이 생산하였으나 한보는 2002년 일본 야마토 공업에 인수³⁾되었고 한국철강은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환영철강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일단락됨
 - 특수강은 기아특수강(現 세아베스틸) 및 삼미특수강(비엔지스틸) 등이 생산하였으나 기아특수강은 세아제강 중심의 세아컨소시엄이 2003년에, 삼미특수강은 광원산업과 함께 2000년 현대INI스틸에 인수됨

국내 철강산업의 주요 구조조정내용

대 상 업 체	시 기	인 수 업 체
강 원 산 업	2000. 3	현대INI스틸
삼 미 특 수 강	2000. 12	현대INI스틸
한 보	2002. 12	일본 야마토공업
기 아 특 수 강	2003. 11	세아제강
한 보 철 강	2004. 10	현대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

자료 : 각사의 발표자료

- 한편,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상기 제품이외에 표면처리 강관을 생산하는 냉연업체는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내 표면처리강관 시장은 포스코와 수요 기반이 확고한 현대하이스코, 냉연강관 전문기업인 동부제강 및 유니온스틸이 생산능력, 품질면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최근 이들 4개 업체는 표면처리강관 증설을 추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세아제강, 해원MSG 등 중견기업들은 설비 신설을 추진하여 생산능력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요는 200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03년을 정점으로 가동율이 점차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3) 인수된 후 와이케이스틸로 사명이 변경됨

표면처리강판의 생산능력과 가동률 추이

(단위 : 천M/T,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증가율 (2000~05)
생 산 량	5,958	6,090	6,390	6,926	6,949	7,190	3.8
생산능력	7,645	7,645	8,210	8,370	9,020	11,250	8.0
가 동 률	77.9	79.7	77.8	82.7	77.0	63.9	

주 : 가동율 = 생산량 ÷ 생산능력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각호

업체별 표면처리강판 생산현황

	포스코	현대 하이스코	동부제강	유니온 스틸	포항강판	세아제강	포항강판	동양석판
용 용 아 연 도 강 판	○	○	○	○	○			
전 기 아 연 도 강 판	○	○	○	○				
석 도 강 판	○		○					○
용용알루미늄도금강판					○			
기 타 도 금 강 판			○	○	○			○

자료 : 한국철강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sa.or.kr)

- 원자재인 열연강판은 전세계 철강업계의 자율적인 감산에 따라 가격상승 추세가 유지됨으로써 채산성 악화가 초래됨
 - 국내 철강산업의 설비투자는 상공정⁴⁾보다는 하공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연강판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 국내업체는 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채산성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냉연 4사는 2006년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음

국내 주요 표면처리강판 제조업체의 경영실적

(단위 :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2005	2006	2005	2006
현 대 하 이 스 코	26,828	30,530	1,291	376
동 부 제 강	23,954	21,801	337	△183
유 니 온 스틸	11,522	10,903	△250	△250
포 항 강 판	5,657	5,745	2	△107

자료 : 각회사 사업보고서

4) 철강생산 공정은 크게 상공정(Upper Stream)과 하공정(Down Stream)으로 나눌 수 있음. 상공정은 제선, 제강(연주 포함)을 통하여 슬라브, 블룸 등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하공정은 반제품을 압연하여 봉형강류, 판재류, 강관류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임.

II. 세계 철강산업의 M&A 현황과 전망

1. 세계 철강산업의 M&A 배경

- 1960~1980년대는 자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자국내의 철강사간 통폐합이 이루어짐
 - 이 시기의 통합화는 경쟁력 강화 등 각국의 산업정책의 변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서 자국내 기업간의 통폐합에 그침
 - 대표적 예로는 British Steel, 신일본제철 및 Usinor-Sacilor(프랑스)의 탄생이 있음

- 그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민영화 추진을 배경으로 철강의 생산, 판매, 유통 등에서 부문별 통합이 추진됨
 - 1990년대 냉전시대 종식에 따른 군수산업의 침체로 철강재 공급기업은 수익성 악화에 직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됨
 - 국영 철강기업의 민영화는 M&A 대상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 이 시기의 통합화는 주로 유럽 업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이 이루어짐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후방산업의 M&A 확산에 대응하고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화가 추진되었음
 - 과점화하는 원료산업 및 수요산업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화가 추진되었음
 - 이는 원료 구매, 물류 등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전후방관련 산업과의 교섭력을 확보하는 경쟁력 제고 전략임
 - 또한, 시장의 수급에 탄력적 공급조절 능력까지 갖추어,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 서로 다른 품목에서 경쟁력과 시장을 확보한 기업간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통합이 추진됨
 - Arcelor는 Usinor가 강점을 가지는 판재류와 STS(스테인리스스틸)부문, Arbed의 STS부문, Aceralia의 봉형강류 부문을 각각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 를 창출, 성공적인 합병으로 평가받음
- 이러한 세계 철강산업의 통합화로도 원료산업이나 수요산업보다 통합화의 정도가 약하여 철강사들은 Price-taker로서의 한계에 직면했음
 - 세계 철강사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7.5%로 철광석 3사 74%, 자동차 6사 76%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장경쟁 심화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한 철강사를 중심으로 적대적 M&A가 이루어짐
 - 선진국 철강사의 고급강 제조 기술력과 개발도상국 철강사의 원재료 및 저임금 등 우수한 원가 경쟁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통합이 추진되었음
 - 2004년부터 중국의 고도성장 및 북경올림픽 등에 따라 철강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향상과 함께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어 적대적 M&A가 새로운 인수합병 전략으로 등장함

2. 세계 철강산업의 M&A 현황

- 1960~80년대에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자국내 철강사간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가 이루어짐
 - 대표적인 사례로는 British Steel, 신일본제철 및 Usinor-Sacilor 등이 있음
 - British Steel은 1967년 영국내 14개 철강업체의 합병으로 탄생함
 - 신일본제철은 1970년 일본정부가 철강기업 통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야와타제철과 후지제철을 합병하여 탄생함
 - Usinor-Sacilor는 1987년 프랑스 정부의 통합노력으로 탄생함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배경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M&A가 추진되었으며 철강의 생산, 판매, 유통의 부문별 통합이 이루어짐
 - 주로 유럽 업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이 주요 특징임
 - Arbed-Bremen, Hoesch-Krupp, Riva-Ilva사간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내 철강기업인 POSCO도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바뀐 사례임
- 2000년대 들어서는 전후방 산업의 통합화에 맞서 교섭력을 제고하고 시장지배력

을 강화하기 위해 M&A가 이루어졌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통합화가 이루어짐

- 전자의 예로는 2002년 프랑스의 Usinor사, 룩셈부르크의 Arbed사, 스페인의 Acelaria사 3사가 합쳐서 당시 세계 1위 Arcelor사가 탄생한 것을 들 수 있음
 - 이 통합은 수익성과 성장성면에서 성공적으로 M&A를 추진한 기업으로 평가되었음

Arcelor의 합병전후 경영실적

(단위 : 백만유로)

	합병전			합병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 출 액	27,586	28,660	27,512	26,594	25,923	30,176	32,611
영 업 이 익	1,016	2,754	756	780	738	3,314	4,376
순 이 익	174	2,059	△256	△121	257	2,290	3,846

자료 : 1) POSRI, 경영연구 제4권 제1호, 2004
 2) 동사, annual report, 각년도

- 후자의 예로는 2003년 일본의 NKK와 가와사키제철이 합병하여 탄생한 JFE(2006년 기준 세계 조강생산 4위)를 들 수 있음
 - 닛산자동차가 강제적으로 철강 구매업체를 3개로 줄이는 집중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일본 철강업계의 협조체제가 무너진 것이 양사의 합병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 가와사키 제철과 NKK는 합병 직전에 각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양사의 통합으로 탄생한 JFE는 이후 지속적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음

JFE Steel의 합병전후 경영실적

(단위 : 억엔)

	합병전			합병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 출 액	29,428	31,028	28,695	24,269	24,737	28,037	30,983
영 업 이 익	1,068	1,600	362	1,469	2,536	4,672	5,172
순 이 익	△335	788	△608	160	1,069	1,601	3,260

자료 : JFE Steel, annual report, 각년도

-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선진국의 고급강 제조 기술력과 개발도 상국의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결합하여 생산능력의 극대화를 추구 하기 위해 통합이 추진됨
 - 2006년 세계 1위 철강사인 Mittal Steel과 세계 2위 철강사인 Arcelor사가 합병

- 하여 조강생산능력 1억톤을 넘어선 초대형 철강사인 Arcelor-Mittal Steel이 탄생함
- 동사는 M&A를 통해 27개 국가에 61개 공장과 32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초대형 철강회사로 변모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였음
 - 조강생산량은 2003년 3,100만 톤에서 2006년 1억 1,800만 톤으로 큰 폭 증가함
- 2007년 1월에는 세계 조강 생산 순위 56위인 Tata Steel이 세계 9위인 Corus를 인수함
- 이 통합으로 Tata Steel의 원재료 및 저임금의 원가 경쟁력과 Corus의 우수한 건설 및 자동차강판 제조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됨
 - 또한, 이 통합으로 Tata Steel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됨
- 성장기에 있는 아시아에서는 대규모 M&A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세계적인 철강사에 대응하고 있음
- 포스코는 최근 Arcelor-Mittal의 적대적 M&A의 위협이 대두되자 전략적 제휴 및 현대중공업 등 수요기업과의 지분 맞교환 등으로 M&A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

세계 철강산업의 시대별 통합 배경 및 특징

	1960~1980년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이후
배경	·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 세계적인 공급 과잉 · 수익성 악화 · 민영화	· 전후방 산업의 M&A 확산 · 역내시장 통합	· 시장경쟁 심화 · 생존전략
특징	· 정부 주도 · 자국내 철강사간 통폐합	· 기업 주도 · 철강유통· 판매 및 생산 부문 통합	· 기업 주도 · 대형 철강사간 우호적 M&A	· 풍부한 자금력 보유기업 주도 · 적대적 M&A 부상
사례	· British Steel('67) · 新日鐵('70) · Usinor Sacilor('87)	· Riva-liva('95) · Arbed-Bremen('95) · Krupp-Hoesch('96)	· TKS('97) · 상해보강('99) · Corus('99) · Arcelor('02) · ISG('02) · JFE Gr.('03)	· Arcelor-Mittal('06) · Tata-Corus('06)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보』, 2007. 3

3. 세계 철강산업의 M&A 전망

가. 세계 철강산업의 M&A 전개방향

- 원료가격 고수준 지속 및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원료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경쟁력의 핵심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원료 광산을 보유한 철강사를 중심으로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이같은 철강사들간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경쟁은 기본적으로 부존자원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임
 - 철광석의 경우 세계 상위 5개국에 전체 매장량의 73%, 원료탄 87%, 알루미늄 74%가 편중되어 있음
 - 또한, 자원 보유국들을 중심으로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인임
- 원가 및 제품 차별화 정도가 기업들의 수익성 및 지속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M&A가 진행될 예정임
 - 원재료 및 낮은 임금 등 원가경쟁력을 보유한 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결합 등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다
 - Arcelor를 흡수통합한 Arcelor-Mittal이 남미~동구 지역에서의 상공정 및 북미~서유럽의 하공정 간의 통합 시너지를 활용하여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임
- 2004년부터 중국 철강수요 급증에 따른 철강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함에 따라 적대적 M&A가 철강산업 통합화의 새로운 전략이 될 전망이다
 - 그러나, 이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경영자원이 분산되고 Cost가 상승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M&A 전망

- Arcelor-Mittal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조강순위 10위 이내에 있는 철강사들의 본격적 대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Arcelor-Mittal은 향후 5년 이내 2억톤까지 생산량을 증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수합병 전략을 펼칠 계획임
 - 2007년 4월 Arcelor-Mittal은 멕시코 철강업체인 Sicartsa를 인수함
 - 이는 북미 건설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멕시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 세계 철강산업의 통합은 선진국 철강사 및 개발도상국별로 각각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선진국 철강사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세계 철강 수요를 주도하는 BRICs 등 개발도상국의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개발도상국 철강사들은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원재료 및 노무경쟁력과 함께 선진 철강사의 보유기술을 습득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소수기업이 주도한 M&A 시장에 BRICs 국가 등 신흥국이 가세하여 치열한 M&A 경쟁이 예상됨
- 러시아, 브라질, 인도 철강사들은 풍부한 에너지 및 자원을 무기로 역내 통합 및 역외 철강사 인수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 됨
 -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상해보강(上海寶鋼)을 중심 축으로 안산(鞍山), 수도(首都) 및 무한강철(武漢鋼鐵)의 4대 철강사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임

중국 4대 기업의 2005년 조강 생산량

(단위 : 백만M/T)

구 분	상해보강	안산보강	수도보강	무한강철
조강생산량	23.8	11.9	10.5	12.0
세계 순위	6	19	22	18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2006

- 향후 통합화 대상은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철강사가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큼
- 유럽 및 북미 시장은 통합화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며, 중국도 정부 주도하에 통합이 추진하고 있어 통합 타겟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II. 시사점

1.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 기술력 및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진국 철강사와 개발도상국 철강사간의 M&A가 추진될 경우 개발도상국 기업과 국내 철강업체의 기술 격차는 단시일내 좁혀질 수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최근 Tata Steel이 Corus를 인수함으로써 Tata Steel은 단시일내 우수한 기술

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Tata Steel은 조강 능력이 연간 44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증가해 세계 5위의 철강회사로 부상함

- 최근 원료 광산을 보유한 철강사를 중심으로 한 M&A 활성화 및 자원 민족주의 움직임의 확산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국내 철강업계는 상공정 부족으로 철강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 세계 철강업체의 통합화 진전은 국내 철강업체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국내 철강업계의 상·하 공정간 수급 불균형은 상공정 부문의 증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공정 부문의 급속한 설비증설로 발생했음
- 최근 포스코 등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포스코는 현금 창출력, 지분 분산, 우수한 기술력, 진행 중인 1,200만톤의 인도 프로젝트, 저평가 등으로 매력적인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대응전략

- 냉연업계 등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세계 철강산업 통합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 또는 열연강관 등 원재료 생산 기업 등 1~2개 업체를 중심으로 M&A나 설비매각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철강기술의 선진화로 글로벌 리더십의 확보가 필요함
 - 세계 철강업계의 통합화 및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및 판매안정성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강의 적극적 개발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파이넥스 공법 및 스트립 캐스팅 등과 같은 독자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실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여야 함
 - 포스코는 독자기술로 Finex공법⁵⁾을 개발, 성공하여 최근 연간150만 M/T의 Finex공장을 준공하였는 바, 이같은 첨단 독자개발 기술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세계기술시장을 선도해야 함

5) Finex공법(Fine Ore Reduction Process)은 원료와 연료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분광석과 일반탄을 직접 사용하여 용선을 제조할 수 있는 용융환원제철법 기술임

- 철광석과 고철 등 원료의 안정적 조달 노력이 필요함
 - 원재료 확보 및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포스코가 현재 추진중인 인도, 베트남 이외의 자원 보유국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철광석과 고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 보유 외국업체와의 M&A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함
 - 또한, 고철을 대체할 철원인 직접환원철과 탄화철 제조기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세계 철강산업 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M&A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용전략이 필요함
 - 포스코 등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움직임에 대응하여 기업가치 제고, 우호지분 확대 및 전략적 제휴 등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포스코는 적대적 M&A 위협이 현실화되자 자사주 매입, 현대중공업 등과 지분맞교환을 통한 우호지분 확대, 전략적 제휴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있음
 - 철강업체간 및 철강업체와 수요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유대관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 기술개발, 시장지배력 확대 및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등 전략적 제휴의 강점이 통합화에 대응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